

PREVIEW

PT & Critic : Reunion 2014-15  
백경호, 윤병주, 천창환 <몽상가들>  
Baek Kyungho, Yoon Byoungjoo, Chun Changhwan <Dreamers>

전시기간 | 2017. 2. 10 금 - 3. 5 일  
오프닝 리셉션 | 2017. 2. 10 금 18시  
PT & Critic | 2017. 2. 18 토 16시 (패널 : 김성우, 김연용)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엔딩에서는 매해 신진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며 시각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형식의 피드백을 지원하는 'PT & Critic'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 텍스트 생산, 현지 예술분야 종사자들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고 작업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7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2014년, 2015년의 PT & Critic 프로그램에 참여한 윤병주, 천창환, 백경호 작가의 작업 변화 및 발전을 엿볼 수 있는 그룹전시 PT & Critic : Reunion 2014-15 <몽상가들 Dreamers>을 소개한다.

작업노트



백경호 진행 중인 작업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은 나의 '비석들'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머리 부분의 미소 먼 표정이나 외관을 보면 비석치고는 경건하기보다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작업 대부분이 미소를 짓고 있다. 맨 처음 이 작업을 할 때 원형의 빈 캔버스 위에 무엇을 그릴지 고민을 했었다. 백색의 깨끗한 표면 위에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망설여지는 순간이었다. 오랜 망설임 끝에 더는 주저하는 것이 싫어서 목탄을 들고 빠르게 드로잉을 했었다. 처음에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리다가 진행을 하면서 왠지 어둡지만, 활짝 웃는 표정이 나왔다. 캔버스를 거울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캔버스가 나를 보고 있기에 그런 표정을 그릴 걸까? 잘 모르겠다. 작업실 벽 한 쪽에 붙이고 보다 보니, 활짝 웃는 표정이 가끔 불편하고 망측하지만, 정이 들었는지 수정하고 싶지 않았다. 미소는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재미가 있다. 속마음이 자명하게 읽히지 않지만, 시간에 따라 다르게 읽히기에 쉽게 질리지 않는다. 신비롭다. 원형의 캔버스를 머리, 사각형의 캔버스를 몸이라 부른다면, 머리와 몸 부분은 동시에 진행한다. 무엇을 먼저 제작한다는 식의 순서는 없다. 그리고 머리와 몸 부분을 짝지어 작업을 진행한다.

윤병주 나는 지난 33년간 수도권 곳곳과 미국으로 아르헨티나로 이사와 이민을 반복하며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다. 지독한 역마살이 팔자려니 생각하며 살았다.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내심 이따위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하더라는 진부한 말들을 인정하기 싫지만 나 역시 예외는 아닌가 보다. 종교를 갖고 있지도 딱히 미신을 믿지도 않지만 이번 작업은 사나운 팔자 좀 고쳐보려 나름의 방식으로 살풀이 해보려 한다. 떠돌아다니는 것이 팔자이라면 원 없이 떠돌아 보겠노라. 살풀이의 수단으로 가짜 대항해를 한다. 칠성당 신령님께서 나는 서쪽으로 가야 천록이 깔려있다고 서쪽으로 키를 돌린다. 소설 <역마>에서 성기는 계연을 만나야 운명을 거스르게 된다는데, 나는 가상의 세계를 일주함으로 살을 해소한다 이 또한 얼마나 기구한지 모르겠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토록 위우고 외웠던 답,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형상화'가 떠오른다. 아이러니하게 항해를 할수록 나는 방구석 한 편에 처박혀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게 됐다. 이번 살풀이 여정의 목적지는 서쪽 나라, 인도와 아르헨티나다. 대항해시대에 그토록 중요했던 신호로 개척의 중심지다. 실제로 여러 차례 다녀왔던 그곳의 기록들을 무분별하게 나열하면서 나의 위치와 태도를 발견하고 변모하는 지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일수'명함은 나의 작업실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일수명함에게서 묘한 응원을 받곤 한다.

천창환 작업실에 홀로 있는 시간동안 나는 침묵하고 있다. 물론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다. 때때로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나, 작업실은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작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월세를 내고 이러한 작업실에 매일 매일 나와 있다. 그런데 간혹 작업실 문에 누군가 노크를 한다. '뚝' 혹은 '뚝뚝'. 나가보면 문 앞에 사람은 없고, 멀어져가는 오토바이가 보일 뿐이다. 그리고 문 앞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던지고 갔을 대부업체 일수명함이 놓여있다. 그제는 '힘내세요'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더니, 어제는 '대박하세요'라는 글이 일수카드에 적혀있었다. 오늘은 아기천사가 명함에서 웃고 있다. 온종일 혼자 있던 나에게 마치 일수명함이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내가 작업실에 나오는 '일수'만큼이나 '일수'명함은 나의 작업실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일수명함에게서 묘한 응원을 받곤 한다.

홍순명 개인전 <장밋빛 인생>  
Hong Soun solo exhibition <La vie en rose>

전시기간 | 2017. 3. 10 금 - 4. 2 일  
오프닝 리셉션 | 2017. 3. 10 금 18시  
아티스트 토크 | 2017. 3. 18 토 16시



인터뷰

Q. 요즘은 주로 회화 매체를 다루지만 초기에는 다양한 재료도 다루고 설치 작업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화작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 다루어오셨던 다양한 매체들과 이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신지요?

A. 고등학교 시절에 그림을 시작했는데 화실이나 미술부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그림 그리지는 재주가 없었다. 자연스레 그림이 아닌 다른 장르에 관심을 두었고 그러다 보니 회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르를 경험해 본 것 같다. Paris 에서는 석판화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주로 설치미술을 했었다. 영상이나 사진도 조금 해 보았다. 2003~2004년에 계기가 있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상당한 재미를 느꼈다. 설치미술을 할 때는 제작이나 전시 설치 과정을 즐기긴 했지만 뭔가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었다. 허나 회화는 하면 할수록 여러 면에서 내게 어울리는 (제작과정은 좀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매체라고 느꼈다. 이후 지금까지 회화의 재미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허나 내 회화작품에는 판화나 사진의 느낌이 배어 있다. 그리고 전시를 할 때에는 설치 작품을 했던 경험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수십 년 하던 일이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Q.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많은 이미지 자료들을 리서치 하고 모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는 사건들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나 자료를 모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작품에 대한 생각은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전체가 작품의 대상이기에 일상 속에서 언제 무엇이 소재나 주제로 다가 올지 모른다. 언제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얻는다. 요즘은 대한민국의 정세가 어지간한 영화보다 다이내믹하다 보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관심 가는 것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전시도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주제이다. 허나 작품을 제작할 때에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나의 특정 사건을 그리더라도 결과물은 평범한 풍경이나 보통의 인물화처럼 보이도록 노력한다. 아무래도 나는 그림의 소재가 된 이야기 보다는 화면의 효과나 분위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Q. <사이드 스케이프> 시리즈 등의 페인팅을 보면 처음에는 고즈넉하거나 분위기 있는 풍경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의 장면 중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실제 현상을 마주하는 독특한 태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 시대의 실제 사건들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2003년 그림을 처음 그릴 때 무엇을 그릴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했었다. 풍경이나 인물을 그리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아름다운 경치보다는 사건들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종의 풍경을 머금고 있기에 그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풍경을 담고 있는 사건과 사건을 담고 있는 풍경 사이를 오가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감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리고 싶었고 그림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싶었다. 게다가 사건의 기운을 느끼기 이전에 평범한 풍경으로 보이기를 원했다. 허나 알고 보면 이런 풍경들은 바람 잘 날 없는 우리의 일상이다. Sidescape는 세상을 바라보는 비켜난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심하기만한 자연에 대한 경의라고도 할 수 있다. 혹은 한 사건을 바라보는 확신에 찬 시각보다는 애매함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포괄적 시각을 선택하려는 시도 일 수도 있다. 가끔은 그림을 그리면서 사건을 분석하거나 재구성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만드는 재미에 빠지기도 한다.

Q. 한 가지 색채의 다양한 톤을 구사하면서 만들어내는 화면이 독특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하실 때 고르는 색상에 대한 기준 혹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신지요?

A. 굳이 말한다면 원래의 색에서 살짝 바랜 색을 좋아한다. 이런 색은 내게 가벼움, 애수, 외로움, 시간의 흐름 등의 단어를 연상하게 한다. 내가 그린 것들을 좋아하나 보다. 다른 이유는 어린 시절 판화를 오래 했었는데 내 판화작품이 비슷한 톤으로 3~4색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었다.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내가 뭐든지 여러 개를 늘어놓고 일을 못하는 성격이다. 물감도 너무 많이 꺼내 놓으면 산만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몇 개 안되는 색으로 그리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허나 이 모든 이유들이 찾으려 하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의 작품은 그냥 수없이 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결과일 것이다. 작업에서 결과물은 언제나 의도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이 함께한다.



| REVIEW with PHOTOS |

권오상 개인전 <릴리프 릴리프>

Osang Gwon solo exhibition <Relief Relief>

2016. 12. 16 금 - 2017. 2. 4 토



전시장 중심에는 <New Structure>가 마치 북두칠성 처럼 놓여져 있었다. 덩그러니 혼자 있다라고 표현하기엔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 부조 형식의 <Relief>는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각 이미지들간의 공간이 다르게 구축되어 있다.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의 거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말이다. 상이한 용도, 모습의 별들이 몇 개씩 이어져 완성된 10개의 별자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보는 이들은 이 별자리들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에그타르트, 토끼, 드럼, 권총, 립스틱 등 (작품에서 눈에 띄는 이미지) 이라 지칭한다. 마치 별자리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말이다. 그렇게 권오상 작가는 쏟아지는 공산품들을 잘라내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 1 | 설치전경
- 2 | Relief11, 나무위에 바니쉬, 143 x 202 x 5.4cm, 2016
- 3 | 오프닝 리셉션, 16.12.16
- 4 | 아티스트 토크, 17.1.7

Meet & Talk : 고재욱 x 김다음

2017. 1. 17 화 19시



1 | 고재욱 작가, 김다음 작가  
2 | 토크 장면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전시 이외의 방법을 통한 작가와 작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소규모 워크샵 프로그램으로서 직접 작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Meet & Talk>를 구성하여 2017년 1월 17일 화요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된 고재욱 작가와 김다음 작가는 '현대미술과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작업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록의 형태로 2월 중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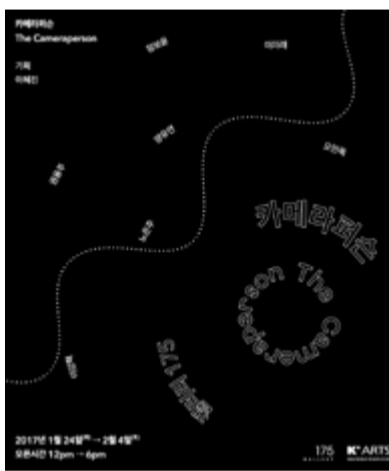


신기운, 장민승 작가는 국립문화아시아 전당(ACC)에서 열린 단체전 <클럽 몬스터>에 참여했습니다. 전시는 2016년 11월 23일 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

호상근 작가는 을지로에 있는 소쇼룸에서 윤재원, 이우성, 엄유정 작가와 함께 하는 단체전 <기록으로서의 그림>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전시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장종완 작가는 문래동에 있는 인터랙션에서 단체전 <보라, 내가 너희를>에 참여했습니다. 전시는 2016년 12월 24일부터 2017년 2월 12일까지.



노은주 작가는 갤러리 175에서 열린 단체전 <카메라 퍼슨>에 참여했습니다. 전시는 1월 24일 부터 2월 4일까지.



신광 작가는 연희동에 있는 보스토크에서 단체전 <gongxi, gongxi>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전시기간은 1월 17일 부터 2월5일까지.

권오상 작가는 2017년 2월 6일자로 득남하였다. 작가가 보내온 사진에서 보여지는 갓난아기의 뚜렷한 이목구비에 감동!

| W&D NEWS |

김인선 디렉터는 과한 서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경아 코디네이터는 약 2주 동안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은 후 3월 건강검진을 예약했고 급하게 바른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주위에선 건강한 2017년을 기원하는 수많은 덕담이 편편일률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조근준 인턴은 최근에 사랑미를 뽑았다. 뽑기 전 그에게 첫사랑이 누구냐며 최원재 인턴이 무척 궁금해 했다.

반달 눈웃음과 하얀 치아미소를 가진 최원재 인턴이 월딩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한황수 코디의 식성을 위협하는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Ah, Oops'라고 탄식하며 아홉수를 맞이했다. 이에 불안한 마음을 진정케 하는 궁정의 랩을 시도때도 없이 흥얼거리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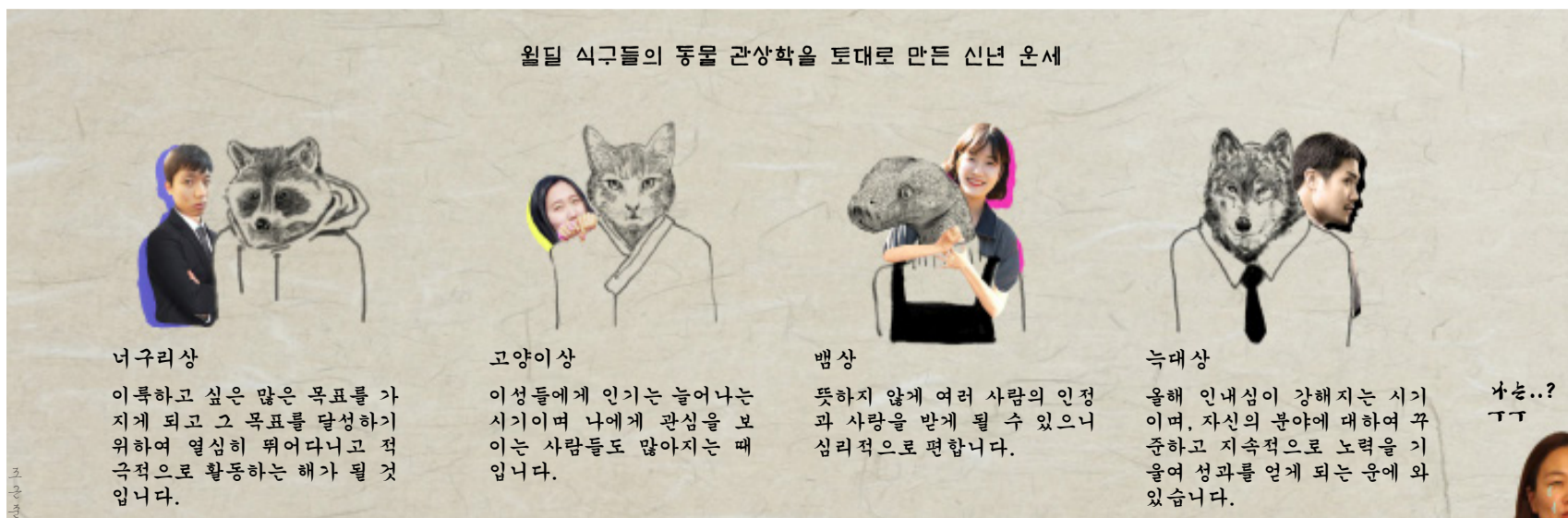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 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이경아, 조근준, 최원재, 한황수  
감 수: 김인선  
발행일: 2017년 2월 9일



너구리상

이룩하고 싶은 많은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고양이상

이성들에게 인기는 늘어나는 시기이며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때입니다.

뱀상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늑대상

올해 인내심이 강해지는 시기이며, 자신의 분야에 대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얻게 되는 운에 와 있습니다.

가슴..?

TT